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새로 수립하는 2040 광주시 도시기본 계획에는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해 그 잡 재력을 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전과 다른 점은 압축도시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토계획에서 언급한 것이기에 실제 지방도시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시에는 그린벨트와 1·2호선 도시철도역을 활용하여 '압축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압축都市는 교외부 난개발 방지와 기성 시가지 집중적 정비를 함께 하는 도시모양 만들거이다. 특히 기성 시가지 내 거점이 되는 곳을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도시기능시설을 집적화하고 복합화한다. 중요한 것은 주거 기능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거점 간, 배후지 간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한다. 그

압축도시의 실현을 위해

결과 생활자의 측면에서는 통행 거리가 단축되고 자동차를 덜 이용하여도 되기 때문에 생활 편의는 물론 건강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저탄소 에너지화를 꾀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각종 공공시설이 교외화하거나 분산하게 되면, 게다가 단일 기능의 건물인 경우 이용도가 낮아지고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 도보권(800m) 내 각종 도시기능시설의 집적화·복합화·연계화가 절실하다. 민간 시설 또한 압축도시 추진을 위해 거점에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시설 단독 혹은 민간 시설과 공공시설의 복합이나 연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축都市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성 도시를 재정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압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각종 시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과 '입지적 정화 계획(사업)'에서도 압축도시를 지향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도시 수가 각각 236개, 499개에 이른다. 유럽의 정제 도시는 물론 미국의 저밀도 확산 도시에서

도 기성 도시를 재정비할 때 이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이미 수립된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 인구의 과대 여부, 공간구조의 핵(거점)과 생활권 중심지의 일치 여부, 둘째, 교외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과와 함께, '개구리뿔튀기식' 개발 등의 실패, 셋째, 기성 시가지 내 공간구조의 핵(거점)과 대중교통의 연계,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압축도시를 지향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성장 한계선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시가지화 예정 용지, 기성 시가지 내 유휴지 등을 조사하여 지정해야 한다. 가능한 한 성장한계선 밖의 시가지 개발 특히 주택단지 개발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40 광주시 기본계획에는 17년의 긴 여정 끝에 탄생시킨 도시철도 2호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역(주요 버스정류장 포함)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를 역세권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구조의 목주 형태(rosario)의 위계별 거점화, 목주 내 역사 건물의 기능 복합화,

역세권 내의 도시 기능 강화와 주거 밀도 상향을 꾀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통폐합화·이전 등의 재편, 역세권 내의 보행로 정비, 환승 주차장 확충을 도모한다.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거점인 역세권마다 도시계획 실현 수단인 용도지역, 시가지 개발사업, 도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도 위주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역세권 내에 도시 기능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보조금과 융자, 그리고 입주자에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도시기능시설이란 공공시설, 의료 시설, 복지 시설, 어린이 보육 시설, 상업 시설 등 도시가 갖추어야 할 일상의 생활서비스 시설을 말하며, 각 역세권마다 이들 시설이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압축도시 추진 방향의 키워드는 광주시의 잠재력, 국내·외 성공과 실패 사례, 기왕의 계획들에 대한 평가와 연계, 실현성 제고 등이다. 계획 내용은 교외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기성 시가지 내 목주 형태의 위계별 거점(역세권)에 대한 집중 정비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칼럼

요통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



이상민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요통이란 몸통의 허리(요부)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의 심한 요통을 경험하고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요통이 흔한 이유는 요추가 중력에 의해서 늘 부담을 받고 있는 부위로 단순히 척추 자체에도 문제가 쉽게 생길 뿐 아니라 디스크, 신경, 인대, 근육 등 척추 주변 구조물들이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외상에서부터 퇴행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요통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인 염좌부터 디스크 탈출증, 노화 및 척추관 협착증, 골다

공증성 골절, 감염, 종양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허리를 빼거나 빼앗겨서 생기는 염좌인데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다치는 경우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은 2-3주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나 드물게는 만성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염좌로 생각하고, 방치했을 때 다른 원인일 경우에는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 감염, 종양 등의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진다면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요통이 흔한 이유는 요추가 중력에 의해서 늘 부담을 받고 있는 부위로 단순히 척추 자체에도 문제가 쉽게 생길 뿐 아니라 디스크, 신경, 인대, 근육 등 척추 주변 구조물들이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외상에서부터 퇴행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요통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인 염좌부터 디스크 탈출증, 노화 및 척추관 협착증, 골다

공증성 골절, 감염, 종양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허리를 빼거나 빼앗겨서 생기는 염좌인데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다치는 경우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은 2-3주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나 드물게는 만성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염좌로 생각하고, 방치했을 때 다른 원인일 경우에는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 감염, 종양 등의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진다면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요통이 흔한 이유는 요추가 중력에 의해서 늘 부담을 받고 있는 부위로 단순히 척추 자체에도 문제가 쉽게 생길 뿐 아니라 디스크, 신경, 인대, 근육 등 척추 주변 구조물들이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외상에서부터 퇴행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요통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인 염좌부터 디스크 탈출증, 노화 및 척추관 협착증, 골다

공증성 골절, 감염, 종양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허리를 빼거나 빼앗겨서 생기는 염좌인데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다치는 경우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은 2-3주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나 드물게는 만성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염좌로 생각하고, 방치했을 때 다른 원인일 경우에는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 감염, 종양 등의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진다면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요통이 흔한 이유는 요추가 중력에 의해서 늘 부담을 받고 있는 부위로 단순히 척추 자체에도 문제가 쉽게 생길 뿐 아니라 디스크, 신경, 인대, 근육 등 척추 주변 구조물들이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외상에서부터 퇴행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요통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인 염좌부터 디스크 탈출증, 노화 및 척추관 협착증, 골다

기고

광주학을 제안한다



전득업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근자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의 원리를 밝히는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의 기본은 문사철(文史哲)이다. 역사학의 기본이 과거 연구를 통한 정체성 정립과 자긍심 제고라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내가 나를 몰라 소홀히 하고 내 주변을 무시하게 되면 어찌 자존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요즘 세상은 너무 조급하여 앞뒤 모르고 길을 마구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기러는 존엄한 주체에 대한 성찰이나 애정, 자존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광주라는 공간은 수억 년의 지리적 환경 위에 자리한 만년 가까운 역사가 있고 한반도 남부 지방의 풍토가 있어 그 안에 광주인의 모태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남부 지역, 풍요로운 농경을 중심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그래서 남도 문화와 남도인들의 고유한 속성

이 나타나는 것이다.

서구가 이렇게 거창함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광주에 광주를 공부하는 조그만 장을 많이 마련하자 하는 것이다. 이를하여 광주학 담론의 장, '광주학'을 제안한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과 광주를 공부하는 소모임을 많이 만들자는 주장을 줄곧 하였다. 광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구성원들이 그렇고 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그렇고 이루어진 결과들이 의문스럽다. 경향각지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탐색하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접한다. 이를 소위 지역학이라고 하자. 그러나 광주학 팔로키움이라는 공부 모임을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여 2015년부터 해 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른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전문 연구기관에서 지역학에 대한 양성한 연구활동과 공부 모임을 지원해 왔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지역은 그냥 스스로 모아 공부하는 공부 모임이 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작년에 이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어 참 기쁘다. 광주에 공부 모임이 많을수록 그해 바로 문화 도시다운 것이 아닌가?

1990년대 이후 지역학은 하나의 화두였다. 우리 지역에는 호남학은 있었으나 광주학을 따로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학에 호남학 연구기관들이 있고 광주학을 호남학의 한 범주로 이해하면 되는데 구태여 또 다른 장을 만들어 나눌 필요가 있나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이미 지역학이 수준급이다. 연구원 개설과 연구기 발간, 역사 자료 수집, 지역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잘 해내고 있다.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일들을 왜 광주에서는 삼가고 있을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형성된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장을 마련하는데 망설임 필요가 있을까? 지역학 연구는 정체성 정립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 활동이나 너무나 타당한 일이다.

혹자는 지역학 연구는 이미 수많은 성과가 있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관심이 있는 광주 도시 공간에 대한 고찰은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자료가 원전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다시 인용함을 반복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다. 광주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양립동의 한자 표기는 어떤 것이 정확한지, 불교의 도입은 언제부터인지, 삼단(三壇)의 위치는 어디인

지 알 수 없다. 그런 가운데 과거의 흔적들이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 요즘 같으면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터가 될 근대 공간들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

우리 공동체 광주에 대한 공부 모임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일종의 불쏘시개이다. 운동은 몇몇이 시작하여 시민 대중과 함께 확산되어야 성공한다. 특히 문화운동은 더욱 그렇다. 소수가 모여 우리를 알아 가는 모임을 점점 활성화시키는 것은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소중한 일이다.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듣고 묻고 내재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근자에 광주는 5월 항쟁, 광주형 일자리,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도시란 원래 수많은 명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통합 공간이라고 보면 다양한 아젠다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요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정신없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나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자금을 세우기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초기 철기시대부터 마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공부해야 할 과제는 너무 많다. 공부를 통하여 우리를 성찰할 공부 모임 '광주학'을 소망한다.

社說

광주 코로나 재확산 초비상...모임 자제를

우려했던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이후 광주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날마다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옛 그제에는 하루 열 명이 넘는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 동안 발생한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2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 한 명을 뺀 31명이 지역 감염 사례다. 종교시설과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가 이어지고 감염원 간 연결고리로 새로운 감염원이 생기는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27-29일 서너 명이 어머들 확진자가 30일에는 열두 명, 어제(오늘 5시 현재)는 아홉 명으로 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도 직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전파 경로가 제대

로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즉각 대응 팀을 광주에 파견해 전방위적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 확진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오늘부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6개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 광주 지역의 가파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초비상 상황이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려면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위험천만 '자전거 도로' 정비 서둘러야

광주시가 공공 자전거 '타랑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안전은 도시의 체 자전거만 배치, '보여 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1일부터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상무지구에서 '타랑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 정거권을 미리 구매한 뒤 원하는 곳에서 빌려 타고 목적지에서 반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가 8억 원을 들여 공공 자전거 타랑개 200대를 설치한 곳은 상무지구 (52개소)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된 데다, 인도 폭도 넓어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둘러 본 상무지구 자전거 도로는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성을 높이고 대중교

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말이 자전거 도로이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무늬뿐인 '자전거 도로'가 적지 않았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도 곳곳에 널려 있었다. 울퉁불퉁 파인 곳도 많았다.

광주 지역 자전거 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298개 노선에 661.39km로 ▲전용도로 128.64km ▲겸용도로(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 가능) 508.79km 등 11.38km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도로에는 구덩이 설치한 간판으로 통행이 어렵고 겸용도로는 지하철 송풍구 구조물로 인해 교통 약자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잘 알다시피 자전거는 뛰어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공자전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15년 동안 간혀 있던 책이 드디어 책장 밖으로 나왔다. 700쪽이 넘는 분량의 책은 '두꺼운 책'을 쫓아 두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존재감을 잃고 있었다. 책장을 탈출할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그 책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위낙 유명한 책이라 '출간 400주년 기념 국내 최초 스페인어 완역판' 피자가 붙은 책을 일단 책장에 모셔두기는 했었다. 도스토예프스키나 카프카 등 쟁쟁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성경'에 이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

적과 싸우기 위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뎌 내기 위해서/ 감히 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고,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는 '상처투성이로 멸시당하는 그 한 사나이'가 노래할 때 아련한 기분이 든다.

광주일보사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를 시작했다. 매달 그가 권하는 책 한 권을 함께 읽는 프로젝트다. 그 첫 책이 '돈키호테'다. 참여자는 각자의 시선으로 책을 읽어 나간 후 매달 마지막 주 신문에 실리는 최

진석과 개고맹명환의 북토크, 최진석의 독법을 만나고 글, 이번 기획을 함께 진행하는 (사)새마을복지협회를 통해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 책을 읽었는지 만나 볼 수 있다.

만화책이나 무협지, SF 소설과 시집, 그리고 그림책과 동화책 등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다룬 책만을 모은 '황당 도서관' 오픈을 꿈꾸는 철학자는 매달 다양한 분야의 책을 권할 것이다. 우리 함께 책 읽기를 시작해 보지 않을까요?

/김미은 문화부장mekim@

함께 읽으실래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